

## 혐오와 덕의 공동체

- 스탠리 하우어스의 덕윤리를 통한 혐오문화의 기독교윤리적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이근식 (감리교신학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혐오와 덕(德)의 공동체

1. 혐오의 문화화
2. 혐오의 원인과 영향
3. 덕의 공동체의 형성과 혐오의 극복

### III.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7.04>

---

• **ABSTRACT** •

---

**A Study on Hate and Community of Virtue: A Study of Christian Ethical Approach to Overcome the Hate Culture through Stanley Hauerwas**

Lee, Keun Sik(Methodist Theological Univ.)

Modern capitalism, Christian fundamentalism, patriarchal system have been having devastating consequences conspiring with politics of emotion. As a result, enculturation of Hate is widespread in society. Hate speech and enculturation of Hate infringe the right of the minority class. Also, this intensifies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 the structure of social environment. The culture of hate offers legal, institutional indulgence to devious politics of emotion. The people in the sense of shame by hate speech are rapidly becoming victims of a social disease named inequality. Hate speech makes a target of hate to dirty contaminator, objectify them and exclude from the public. Therefore Christian community should promptly respond on the proliferation of hate with forming the new community of character. The Christian community should shape the community of respect, empathy, and peace. A community of virtue should perform discipline of emotion and build friendship and good fellowship. And even further, solidarity between the community of character is taking place continuously in the politicization of hate.

**Key words:** Hate, Virtue, Character, Community.

---

## I.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나 집단 혹은 종교의 대표들이 타 국가나 민족 혹은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쏟아내는 혐오발언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발언은 단순히 언어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집단과 대중에게 감정적 행동을 일으키며 이어서 폭력으로 번져나가기에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한국사회에도 혐오현상이나 사건들이 자주 보도된바 있다. 벌레(蟲)자를 붙여 급식을 먹는 초중고생들은 ‘급식충’, 대학 수시 전형 입학생들은 ‘수시충’, 노인 지하철 탑승객을 노인충, 무임승으로 부르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벌레’로 낮춰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타자혐오 뿐만이 아닌 자기혐오의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확장된다. ‘이생명’ (이생에서는 망했다), 금수저/흙수저, n포세대라는 표현이 언론을 통하여 등장하였다. 혐오의 표현들은 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단순히 표현된 단어적 의미를 넘어서서 초탈, 체념, 우울 등의<sup>1)</sup> 감정적 표현 또한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혐오 발언과 표현들은 최근 사회, 정치, 경제적 불안감, 전통적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서열식사고, 게다가 현대 기독교 근본주의 사고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깊이 있게 빠른 속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혐오는 다양한 원인과 배경을 지니고 있다. 정치 경제적이며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원인을 하나로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혐오의 다양한 원인중 감정적 요인은 혐오의 확장성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혐오의 감정은 한순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분노의 감정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욕”과 “원한의식”이 있다.<sup>2)</sup> 하지만 이러한 감

1)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서울: 여이연, 2016), 7-8.

정과 감정의 표현은 불의, 억압에 저항의 문화가 담겨져 있으며 자기보다 강한 권력자에게 향하였다. 그러나 혐오현상의 방향성은 강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에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가부장 전통과 신분사회의 유습이라 할 수 있는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부정적 공동체의식, 집단 의식, 혹은 군집성이 의식구조 내부에 온존해있다.<sup>3)</sup> 이미 의식 내에 깊이 뿌리박힌 이중적, 시대착오적 강박증은 강자가 아닌 약자에 대한 혐오나 증오로 나타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혐오현상은 사회변혁과정에서 감정의 정치가 합리적 설득과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혐오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을 때 기독교 공동체는 바른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감정의 정치가 폭력, 차별, 억압의 정치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 나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평화의 성취이기 때문이다.<sup>5)</sup> 또한 교회는 감정적으로 분노와 증오와 혐오를 쏟아내는 것을 막아설 언어의 진실성을 가진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혐오의 확산에 대한 해법으로 덕의 공동체 형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 공동체는 “성품과 덕”의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언어의 진실성과 감정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천성을 지닌 덕과 성품의 공동체<sup>6)</sup>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덕의 공동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sup>7)</sup> 혐오현상은 다양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토대 속에서

2) 김열규, 『한국인의 원한과 신명 맺히면 풀어라』,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3), 71.

3) 박호성, 『공동체론』, (과주: 효형출판, 2009), 387.

4)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9.

5) S.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Labyrinth Press, 1988), 104.

6) S.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104

인간의 본능적 감정 토대를 양분으로 삼고 자라났다. 이러한 본능적 감정을 성품과 덕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통하여 극복해 보고자 한다.

## II. 혐오와 덕(德)의 공동체

### 1. 혐오의 문화화

#### 1) 혐오의 출현

혐오의 출현의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원은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대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신화에 이미 남성우월주의와 여성경멸이 나타난다.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우주적 질서란 여성적인 것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며, 여자를 남자에게 복종시키는 사회질서였다.<sup>8)</sup> 기원전 23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우루카기나 칙령(Urukagina's Edict)은 “여자가 남자에게 불경스럽게 말하면, 그 여자의 입술을 불에 구운 벽돌로 짓이겨 놓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sup>9)</sup> 존 헬비스푼은 “여성을 압도하거나 심지어 경멸하고자 하는 남성의 욕구는 국경에 상관없이 범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한다. 가부장제가 거의 범세계적인 현상인 것처럼, 여성혐오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자연적인 응답이라고 설명한다.<sup>10)</sup> 가부장적 사회질서에서는 여자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녀는 항상 남자에 의해 성적으로 그리고 출산을 위하여 통제되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sup>11)</sup>

7) S. Hauerwas, *Resident Aliens :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55

8) 윌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47.

9) 윌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94.

10) 존 헬비스푼, 김준년, 이계준 역, 『성경과 폭력』,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144.

11) 윌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95.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는 서구사회에서 19세기 말까지 존속 되었다. 남성 기독교인들이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로 간주하였고 이것은 여성의 성과 노동의 착취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서 기독교 안에 남성중심의 가치와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났다.<sup>12)</sup> 혐오 현상은 다양한 요인의 결합과정을 거쳐 발생하고 확장되어 나갔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서 시작한 여성혐오는 여성이 남성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경쟁상대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혐오로 투사되었다.<sup>13)</sup>

혐오가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한 시대에 갑자기 출현 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타인에 대한 폭력의 성향은 오랜 기원을 지니고 있다. 고대 인간을 산 제물로 바치는 아즈텍 종족(Aztec: 옛날 멕시코 중부를 지배했던 나와틀게의 종족)의 의례적인 형태 속에서도 현대 전쟁 속에서도 인간을 제물화 하여 희생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sup>14)</sup> 혐오가 폭력으로 나타나고 그 폭력의 극단적 표현이 전쟁이다. 타인종이나 민족, 계층으로 확장된 혐오의 폭력의 극대화는 결국 전쟁으로 인한 학살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전쟁 문화에서 고대 그리스의 평화는 적을 섬멸하고 초토화한 후에 얻어지는 평화였다.<sup>15)</sup> 로마제국 시대에는 타민족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자비한 차별의식이 있었다. 이 차별의식에는 인종과 종교가 더해지고 정치의식이 더해져 그 잔인성은 강화되었다.<sup>16)</sup>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무자비한 압제와 착취를 가하면서도 제국들은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sup>17)</sup> 이러한 폭력

12) 박충구, 『예수의 윤리』, 36.

13)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30.

14) 에리히 프롬, 『불복종에 관하여』, 183.

15)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22.

16)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41.

17)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43.

과 전쟁과 증오의 역사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혐오문화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혐오발언(hate speech)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혐오발언이란 인종, 종교, 젠더, 연령, 장애, 성적지향 등을 근거로 하여, 선동적(inflammatory), 모욕적(insulting), 조롱하는(derisive), 위협하는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8)</sup> 브리트는 “혐오발언’(hate speech)을 상처를 입히는 말로 정의”한다. 그런데 ‘혐오발언’이 종교적 특히 성서적 전통과 연계되어 ‘저주선언’으로 드러났다.<sup>19)</sup> 성서적 저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혐오발언은 단순히 말 이상의 힘을 행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sup>20)</sup>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도 명예 훼손죄 혹은 모욕죄의 형법규정이 있으나 혐오에 대한 법적용은 논의 중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무속 신앙과 기독교적 저주의 사고 속에서 볼 때, 혐오는 단순히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하다. 찰스 로렌스는 혐오발언을 일컬어 ‘인종적 낙인이라는 형태의 공격이고, 표적이 된 집단에게 하찮은 가치밖에 없다고 전하는 메시지이며, 언어에 의한 뺨치기’라 표현한다.<sup>21)</sup> 혐오발언은 소수자를 표현으로 괴롭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혐오발언의 파괴력은 발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대상자나 공감하여 동참하는 자들 모두가 그 말과 표현이 실제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난다. 혐오발언을 듣고 말하고 혹은 댓글이나 다

18)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8.

19) Brian M, Britt, “*curse left and right: hate speech and biblical trad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78, 2010), 633.

20) Brian M, Britt, “*curse left and right: hate speech and biblical tradition*”, 634.

21) 모로오카 야스코 지음; 조승미; 이혜진 [귀웁김, 『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파주 : 오월의봄, 2015), 76.

22) 모로오카 야스코 지음; 조승미; 이혜진 [귀웁김, 『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84.

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감하는 사람이 그 말이 힘이 있다고 믿는 한 말은 힘을 가진다는 뜻이다.<sup>23)</sup> 혐오발언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말에 의한 공격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가하는 차별의 공포와 폭력의 고통을 되살아나게 하여 후세대에 영향을 준다.<sup>24)</sup> 혐오발언이 초래하는 또 다른 해악은 편견을 확산시켜 고정관념으로 만들고,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여 결국 차별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sup>25)</sup>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혐오발언’은 전통적인 저주의 모습과 방향성의 차이점을 지닌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저주는 초자연적 수단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호소하는 말의 사용”이다. 이러한 저주의 대상은 하나님, 교회, 왕이라는 힘과 권력의 상징에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혐오발언은 인종, 계급, 성, 민족성, 성적 경향 혹은 개인의 종교와 관련되어<sup>26)</sup> 보다 하향적, 구체적, 세부적, 구체화 되어 나타난다. 혐오발언은 단순히 차별적인 발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편견과 차별에 기인한 혐오발언은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당하고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삶의 올바른 성숙의 기회를 강제로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사회정의 훼손의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sup>27)</sup>

민무숙은 우리사회를 통틀어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차별은 여성과 장애인, 인종 그리고 연령차별이라 말한다.<sup>28)</sup> 혐오의 차별과 폭력의 대상

23) Brian M, Britt, “curse left and right: hate speech and biblical tradition”, 635.

24) 모로오카 야스코 지음; 조승미; 이혜진 [귀욤김, 『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89.

25) 모로오카 야스코 지음; 조승미; 이혜진 [귀욤김, 『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98.

26) Brian M, Britt, “curse left and right: hate speech and biblical tradition”, 636.

27)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12.

은 오히려 약자에게 이루어지기에 그 심각성이 큰 것이다. 사회적 소수계층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까지 감정적으로 용인하거나 법 감정을 통하여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이르게 될 때 사회적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 2) 혐오의 문화화

혐오문화는 독특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첫째, 증오의 대상을 선정한다. 자신의 생존 또는 번식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는 작게는 자신의 행복이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대상의 선정이다. 여기에는 인종, 종교, 성별, 민족, 국적 그리고 성 정체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편견이 작용한다. 둘째, 우리 대 타인으로 친구와 적, 강자와 약자, 옳음과 그름과 같은 이분법적 구획화를 한다.<sup>28)</sup> 혐오 대상에 대한 관계 끊기와 구획화로 시작하여 관계성의 배제를 통한 상대화시키기 작업이다. 셋째, 혐오 대상을 사물화 하기로 발전한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사물로 비인격화하기 이다. 넷째, 혐오 대상을 희생제의화(犧牲祭儀化)하기 이다. 집단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다수가 소수를 집중적으로 비판, 비난, 조롱, 모욕주기를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정치적으로는 적대감의 해소할 적(敵)을 찾는 일이며 경제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빼앗아간 대상에 대한 보복이며 종교적으로는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적 구별로서 속에 대한 저주의 개념이 내재해 있다.<sup>30)</sup> 다섯째, 타인을 차별하는 혐오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집단 결속 현상이 나타난다. 일시적 집단 결속 현상은 혐오문화에 나타나는

28) 민무숙,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77.

29)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5), 73.

30)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197.

독특한 현상이다. 이들은 혐오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들의 집단 내 응집력과 정체성은 적대 관계를 통하여 나타난다.<sup>31)</sup> 여섯째, 특정한 대상을 일관되게 겨냥하고 이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성을 띄게 되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폭력과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파생시키며 혐오범죄에 이르게 된다.<sup>32)</sup>

‘혐오’가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홍성수는 이를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지게 하는 변연계 망상증(limbic paranoia)”<sup>33)</sup>이라고 표현한다. 혐오의 요소와 요인들이 결합하여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현상이 혐오의 문화화가 되었다. 혐오의 문화화(enculturation)는 이 시대 상황의 자기 투영(投影)이다. 혐오의 문화가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제공하는 이원론적, 배타적 사고하기는 모든 혐오 문화의 근저에 깔려 있다. 여기에 정치적 권력 역학 관계가 가져오는 피아식별하기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민족적, 인종적 구획화를 만들어 낸다. 세계화가 가져온 경제적 상황은 새로운 계급체제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거시적 상황이 가져온 결과가 반유대주의, 여성혐오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증, 반동성애주의라면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내에서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혐오 대상도 유사한 경향을 지닌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과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 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나타나는 대상의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31)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198.

32)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306.

33)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12-13.

약자들은 벌레(蟲)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혐오문화의 확산은 국가, 공동체, 사회 전반에 두려움, 적대감, 의심을 창조한다.<sup>34)</sup> 혐오문화의 확산은 폭력문화의 확산과 상관성을 지닌다. 윌터 잉크의 표현대로, 마치 “폭력(暴力 violence)은 우리시대의 시대정신(ethos)이며, 현대 세계의 영성(spirituality)이다. 폭력은 종교의 위치까지 차지하여, 그 추종자들에게는 죽기까지 절대복종을 요구하게 되었다.”<sup>35)</sup>

## 2. 혐오의 원인과 영향

### 1) 혐오와 감정

혐오는 집단 감정과 연관성을 지닌다. 게다가 목적이 숨겨진 감정이다. 이 부분을 케이스(Casey)는 분노(anger)와 혐오(hate)의 차이를 통하여 설명한다. 분노는 “능동적 감정”(active emotio)인 반면, 혐오는 “수동적 감정”(passive emotion)이다. 능동적 분노는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면을 비난하고 대응하지만, 수동적 증오는 그 목적을 숨긴 채 인종적 혈통과 같은 특별히 반대할만한 특징들을 공유한 무리 속에 누군가를 분류해 넣는다<sup>36)</sup>고 설명한다.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은 역시 “대중감정”과 “혐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혐오의 감정적 측면을 설명한다. 첫째, 특정 종류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근거로 혐오가 사용되고 있으며, 혐오가 특정한 행위의 위법성을 정당화하는 일반 대중의 감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sup>37)</sup> 이러한 감정이 일정한 부류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정당화하

34) Barbara Perry, *In the Name of Hate: Understanding Hate Crimes*, 10.

35) 윌터잉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43.

36) S.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 89

37)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 민음사, 2015), 27.

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려움, 분노, 동정심과 같은 감정들이 법과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고 말한다.<sup>38)</sup> 혐오는 어떤 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차적인 또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sup>39)</sup> 둘째, 너스바움은 혐오는 본능적인 감정이며, 구토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수반한다고 말한다.<sup>40)</sup> 셋째로 혐오는 관념적 요소에 의하여 유발되는 (대상이 지닌 속성 또는 기원,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역사로 구성되는) 단순한 기피와는 다른 “가까움에 대한 거절”이라고 말한다.<sup>41)</sup> 넷째, 혐오는 자신의 몸 안과 밖이라는 경계와 관련이 있다. 혐오스러운 것은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저열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sup>42)</sup> 혐오는 오염물로 간주되는 일군의 핵심 대상에서 시작한다.<sup>43)</sup> 혐오의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다<sup>44)</sup>고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 평범한 감정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조차 쉽게 표현되고 느껴지는 혐오(hate)와 공격성(aggression), 선망(envy), 질투(jealousy), 탐욕(greed)으로 쉽게 드러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여야만 하고 삶 속에서 언제나 행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된 필요성에서 파생(derivative)된다.<sup>45)</sup> 그러나 적절한 감정과 욕구를 가지기 위하여 덕스럽게 되어져야 한다고 여기는<sup>46)</sup> 사람은 보편적이지

38)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25.

39)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16.

40)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166.

41)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167.

42)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168.

43)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176.

44) 마사 너스바움 ;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186.

45) Melanie Klein, Joan Riviere, *Love, Hate and Reparation*, London , (L. and Virginia Woolf at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1937), 10.

46) S.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 152.

않다. 결국 혐오는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은 감정적 표출이며 증오 이면에 숨겨진 목적성을 지닌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 지기를 원한다. 그 결과 자신의 행복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그릇된 분노와 증오가 표출된다. 게다가 행복, 건강, 복리를 국가가 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sup>47)</sup>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짐에 대한 대중 감정은 증오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와 타자의 구별이 단순히 내 삶의 행복을 침해하는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그리고 노여움이나 증오심이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증오로 표출된다. 그 결과 우리와 타인의 이분법적인 구분의 습관화는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사라지게 만든다.<sup>48)</sup> 공감능력이 사라지고 무관심이 들어서며 무관심이 증오와 결부되면 소름이 끼치는 결과가 생겨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처럼 타인을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바꾸며 대상을 죽이기 위한 작업 라인을 실현한다. 타자를 사물화 시킨 자아의 증오는 마치 도살장에 들어온 젊은 일꾼이 끝내는 소를 잡는 일을 습관처럼 하게 되듯이 이런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죽음의 세계를 습관화한다.<sup>49)</sup>

탐욕, 질투, 따돌림, 굴욕, 심지어 이해타산과 같은 감정들이 공격성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게다가 감정적 요인에서 출발한 사건들이 갈등이 되면 증오심으로 발전하며 이어서 폭력이 된다.<sup>50)</sup> 현대 사회에서 우리와 타인 사이의 증오와 그것이 정기적으로 만들어 낸 고통스러운 분열은 테러, 전쟁, 그리고 학살과 같은 폭력의 형태로 폭발하고 있다.<sup>51)</sup>

47) S. Hauerwas,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66

48)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68.

49)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69.

50)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70.

51)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75.

민주주의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여기는 성숙한 시민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내가 어찌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구역질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sup>52)</sup>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임옥희는 사회변혁과정에서 감정의 정치가 합리적 설득과 이성적 판단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sup>53)</sup>

협오와 폭력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행위자들이 가져야 하는 죄책감의 처리이다.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에 집단적, 조직적 동참에는 내면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죄책감의 해소가 중요 요소로 작동한다. 이 부분은 종교적 제의의 요소인 희생 제의로 해결하고 있다. ‘희생제’는 파괴와 같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만 제물 이외의 나머지를 치명적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준다. 폭력은 희생제의를 원칙이다. 그러나 제의의 형태를 갖춤으로서 제의를 지내는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물로 뽑힌 순간 제물은 저주를 짊어지고 소모되는 것이다.<sup>54)</sup> 제물의 소모를 통하여 심리적 정신적 위안을 얻게 된다. 희생제의는 천박한 사용(usage servile)이라는 개념을 지닌다. 주체와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어떤 것을 하나의 사물(대상)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격을 제물이 되는 순간 모든 연대감과 동질성을 버리고 객체화 시킨다. 그리고 희생제의를 통하여 사물화된 것으로서의 사물을 파괴해 버린다. 파괴행위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부정한다.<sup>55)</sup> 전통적으로, 희생양을

52)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강동혁 옮김, 『협오에서 인류애로 : 성적 지향과 헌법』, (서울 : 뿌리와이파리, 2016), 23.

53)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서울:여이연, 2016, 9.

54)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저주의 뭉』, (과주: 문학동네, 2004), 101.

55)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저주의 뭉』, 97.

절벽 끝에 데려다가 세워놓고는, 전 공동체가 반원을 그리고 둘러서서 돌을 던진다. 그래서 그 희생물의 죽음에 대해 모두가 죄책감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위협을 제거하고 그 희생양 때문에 이루어진 화해를 축하하고 공동체는 평화를 되찾는다.<sup>56)</sup>

협오 또는 증오심의 문제점은 정체성 형식을 취하며, 호전적인 형태이며,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선천적인 친절함을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어 초보적 폭력에서 전 세계적인 교활한 폭력과 테러리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sup>57)</sup>는 것이다. 감정적 증오와 협오가 실제적 폭력으로 나타나기에 협오의 문화화 현상은 그 문제점이 크다. 동일한 문제에 협오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집단적 폭력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받는다. 폭력이 개인에게 국민적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sup>58)</sup>

## 2) 협오와 기독교

“협오문화”는 정치, 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경제적 권력과 연대해 있는 종교권력자들은 신학적 사고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차별구조가 팽배해지는 사회위기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정치적인 불안정의 시대에서, 교회의 근본주의적 사고는 권력과 정부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하여줄 사회제도와 체제를 유지해줄 필요성과 만나 종교와 정치의 연계가 발생한다.<sup>59)</sup>

너스바움은 기독교 우파가 협오에 기초를 둔 방침들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60)</sup> 협오는 신앙심보다는 이 뿌리 깊은 인간적

56) 월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276.

57) 아마르티아 센, 이상환 역, 『정체성과 폭력』, (서울: 바이북스, 2009), 21.

58)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89.

59) Martin E. Marty and R. Scott Appleby. *Accounting for Fundamentalism*, 802.

반응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성경을 선별적으로 읽어내는 특이한 방식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이다.<sup>61)</sup> 기독교 우파가 가져온 신학적 사고 속에 타자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의 타자 증오에 대한 대표적 사건은 여성 혐오 혹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로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이 타자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하는 것은 그 정체성과 크게 이질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텔레비전 부흥사는 “동성애의 용납은 이방 기독교 쇠퇴의 마지막 단계”이며 “동성애자들이 크리스천 모두를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유괴범, 살인범 및 절도범들을 차별하는” 것과 동일한 근거에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62)</sup> 타자에 대한 심판적, 적대적, 파괴적 언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증오심을 표출하는 이유는 근본주의 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너스바움은 한국사회의 기독교 우파의 행동을 우려한다. 한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법안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63)</sup>

종교가 아닌 예술이 오히려 혐오와 싸워나가고 있다. 예술이 먼저 레즈비언도 혐오스러운 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sup>64)</sup> 하지만 기독교 우파는 게이와 레즈비언들로 인하여 사회가 오염되고 더러워지며 부패와 타락한다고 주장한다.<sup>65)</sup> 여성 서품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의 거부이유가 서품을 할 경우

60)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22

61)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19

62) 존 웰비 스펙, 김준년, 이계준 역, 『성경과 폭력』,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171.

63)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13.

64)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16.

65)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23.

불결한 즉 생리를 하는 여성이 교회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되었다<sup>66)</sup>는 것은 현대 신학적 사고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기독교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른 분노는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 해악을 끼치는 권력으로 향하여야 한다. 거짓 혐오를 바른 분노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교회의 역할이다. 바르게 분노하는 것은 함께 고통당한다는 뜻이다. 분노를 회피하고 자신의 영혼에만 살뜰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롬8:17)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7)</sup>

### 3) 혐오와 자본주의

1980년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발효로 전 지구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개념이 확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84년 이를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sup>68)</sup> OECD국가 설문 응답자중 평균 10.3%가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sup>69)</sup> 전 세계적으로 차별에 관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로 보인다. 차별은 배분의 불평등성과 관련되어있으며 배분의 문제는 경제적, 권력적인 자원과 관련되는 것으로 개인이 어떤 집단적 속성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다.<sup>70)</sup> 그런데 전통적으로 경제적 우위를 지켜왔던 남성들은 자신들의 몫을 여성들에게 빼앗긴다는 의식에 사로잡혀있다. 오랜 기원을 가진 남성의 여성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은 경제적 요인에서 더욱 크게 부각된다.

66) 존 셀비 스펙, 김준년, 이계준 역, 『성경과 폭력』, 149.

67) 박충, 『육쟁이 예수』, (파주: 살림출판사, 1989). 19.

68) 민무숙,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4), 3.

69) OECD, 『성별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35.

70) 민무숙,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4, 151.

일자리를 위협받는 남성들은 자신들과 경쟁하는 여성들을 경제적 걱정 없이 한가롭게 소비하는 자아의 이미지로 포장된 ‘된장녀’로 표현하며 선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만든다.<sup>71)</sup> 인간 차별의 본성의 주요한 부분이 경제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성이 경제적 문제로 혐오 대상이 되는 근거는 여성의 가치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폄하하는데서 드러난다. 속전속결의 시대에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가치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헌신, 희생, 신뢰, 정직, 양육, 보살핌과 같은 가치들은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된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온 이러한 가치들은 노력에 비해 경제성은 형편없다<sup>72)</sup>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양극화가 초래한 경제적 공포,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화적 불안, 계층상승의 좌절로 인한 정치적 혐오의 원인을 여성혐오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sup>73)</sup>

현대사회의 혐오의 근저에는 경제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물질세계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물질적 흐름이 끊기거나 적어지면 존재의 상실을 느낄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sup>74)</sup> 자본주의의 풍요에 눈이 멀었던 이들이 그 폐해를 경험하게 되면서 비난과 증오의 대상을 찾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로버트 메르톤(Robert Merton)은 긴장이론의 아노미(anomie: 사회적 가치관의 붕괴로 인한 혼돈상태) 개념으로 혐오를 설명한다. 메르톤에 의하면, “빗나간 행동이 평형을 잃은 상태의 결과로 혐오 문화가 출현한다.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적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수단이 분열을 일으킬 때 나타난다. 빗나간 적응(deviant adjustment)은 목적에 성공적인 도달을 약속하는 제도화된 절차가 개인에게 이용 불가능할 때

71)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25.

72)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23-24.

73)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7.

74) 박충구, 『예수의 윤리』, 43.

에 나타난다.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좌절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sup>75)</sup>고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빛나간 적응이 반유대주의(antisemitism)와 외국인혐오증(xenophobic)의 폭력으로 나타난다. 골드스타인은 반유대주의(antisemitism)와 외국인혐오증(xenophobic)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은 이념과 민족과 투자의 국제적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세계화에 대한 불안감에 일정부분 연관되어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이들이 국제적인 연결성의 거대한 증가에 위협을 느끼며 그들의 국가 정체성과 독립성의 상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빠른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들은 옛 신화에 고착되고 거친 문제들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sup>76)</sup>는 것이다. 혐오는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 영역을 민족, 인종의 분야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 3. 덕의 공동체의 형성과 혐오의 극복

#### 1) 평화와 진리의 공동체 형성

혐오의 문화화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수치심을 주어 희생양으로 삼는다. 경제적 혹은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을 찾는 현상이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그 불결함을 통하여 오염되지 않으려고 상대를 격리시키는 행위에서 시작되어 법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별구조를 강화시키는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혐오 문화화 현상을 감정적 두려움에서 오는 “적”을 형성

---

75) Barbara Perry, *In the Name of Hate: Understanding Hate Crimes*, (Newyork: Routledge, 2001), 35.

76) Phyllis Goldstein, *A Convenient hatred: the history of antisemitism*, (Brookline, MA : Facing History & Ourselves, 2012), 349.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을 “덕의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로마 제국 시대의 폭력적 지배 속에서 억압과 차별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소수자였으며 주류 경제,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이던 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는 평화를 추구하였다. 평화를 그리스도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덕으로 이해하였다.<sup>77)</sup> 평화를 “덕”으로 이해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본능적 감정, 두려움, 증오, 차별의 원인을 “덕의 혼란”이라는 방법으로 극복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호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대안적 질서와 공동체를 모색하였고, 사랑과 평화와 평등주의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갈 3:28)임을 분명히 하였다.<sup>78)</sup>

혐오의 극단적 모습인 전쟁과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덕의 공동체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폭력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 윌터윙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벧전 2:23)고 하면서 “십자가는 비폭력의 궁극적인 패러다임(paradigm)이다”<sup>79)</sup>고 말한다. 평화를 덕으로 보고 공동체 속에서 혼란을 통하여 평화의 공동체를 완성해 나간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 혐오 현상의 해결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혐오의 원인을 해결할 덕의 공동체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혐오의 시대 속에 필요한 덕의 공동체는 첫째, 자본주의와 소유에서

77)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79.

78)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81

79) 윌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271.

벗어난 공동체이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현대 미국교회의 폭력성의 원인을 “소유”의 문제로 보고 있다.<sup>80)</sup>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분열과 폭력성과 전쟁에 대한 지지의 근거도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릇된 열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열망은 소유를 지키기 위한 폭력성의 원인이 된다.<sup>81)</sup>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때 교회에 필요한 외침은 이것이다. “회개하고 소작인으로 돌아오라. 우리는 단지 소작인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다.”<sup>82)</sup> 교회는 소유에 대하여 신실해지려는 싸움 속에서 신실함의 훈련된 공동체로서 자신을 경험하여야 한다.<sup>83)</sup>

둘째, 언어의 훈련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말해야만 한다. 바울은 본질은 없이 뛰어난게 말하는 거짓 설교자를 책망했다. 말씀을 파는 상인이라고 바울은 그들을 불렀다.<sup>84)</sup> 교회의 폭력성의 근원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거짓에서 시작된다. 설교, 기도, 성만찬 등 교회의 보이는 언어와 보이지 않는 몸짓의 언어에 이르기 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속에서 진리가 사라진 것의 결과는 폭력의 잉태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상처주기를 원치 않기에 거짓을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말았다.<sup>85)</sup>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실해지는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로부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sup>86)</sup>

80)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86.

81) S. Hauerwas, *Cross-shattered Christ : meditations on the seven last words*, (Grand Rapids, Mich.: Brazos Press, 2004), 41

82) S. Hauerwas, *Disrupting time : sermons, prayers, and sundries*, (Norfolk, Va.: Cascade Books, 2004), 69.

83) S. Hauerwas, *Resident Aliens*, 132

84) S. Hauerwas ; W. H. Williman, *(The) truth about God*, 47.

85) S. Hauerwas ; W. H. Williman, *(The) truth about God*, 49.

## 2) 우정의 공동체와 성품의 연대

혐오문화 속에 숨겨진 감정은 두려움이다. 증오와 폭력과 차별을 일삼은 행위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찾아 그 두려움을 버리고 우정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sup>87)</sup>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공동체는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을 거부하는 두려움에서 나타난 혐오를 극복하려면 더 커다란 인간 본능의 두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교회는 이미 로마에 대항해 온 가장 결정적 정치적 증거인 순교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순교자들을 기억함으로써 교회는 “너는 우리를 죽일지라도 너는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sup>88)</sup> 교회 공동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며 친구를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sup>89)</sup> 능력을 지닌 덕의 공동체였다.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보여야 할 대안적 공동체의 모습은 친구, 우정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적에 대한 두려움과 방어함이 없이 다른 이들의 타자성을 위협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sup>90)</sup>

다문화, 다인종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 교회는 유독 이방인에 대한 공포를 지녀왔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과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배타적 신앙을 강화해 왔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발전에 따른 사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친구들의 공동체여야만 하고 이방인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교회여야만 한다.<sup>91)</sup>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

86) S. Hauerwas ; W. H. Williman, *(The) truth about God*, 49.

87) S.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26

88) S. Hauerwas, *After Christendom*, 38.

89) S.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 49.

90)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51.

들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듯이, 적대자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야 한다. 억압받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 내부에 있는 사악함을 인정해야하고, 고통스럽게 애쓰면서 자신을 바꿔야하고, 우리의 그늘진 측면을 되찾아내야만 한다.<sup>92)</sup>

우리가 반대하는 타인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인간애와 독특한 개성을 깨닫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적들을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인류인 친구로 인식시킴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잔학성을 줄어들게 해야 할 것이다.<sup>93)</sup> 편협함과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우리와 타인간의 구분을 극복하게 하는 잠재적인 세 가지 요소인 공감대, 공동의 목표,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sup>94)</sup>

혐오(hate)는 이원론적 사고에 의존한다. 증오는 언제나 주체와 객체를 필요로 한다. 혐오는 조화와 그 참다운 상태를 부수뜨린다.<sup>95)</sup>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하려는 힘을 빼앗아야 한다.<sup>96)</sup> 그리고 그 이면에 깊이 숨겨진 희생제의와 제물의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제물에 대한 저주의식을 제거해야 한다.<sup>97)</sup> 혐오구조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정치, 경제적 차별구조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성품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 인격과 인권을 지닌 인간을 동물, 곤충, 더러운 배설물들로 여기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이들에게

91) S. Hauerwas ; C. Pinches,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83.

92) 윌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76.

93)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5), 76.

94)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349.

95) Kathie Weingarten, *On hating to hate*, (New York : Family Process , 1962), 278.

96) 윌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327.

97)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8.

저항하여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는 고통 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있을 때<sup>98)</sup> 드러날 것이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을 통한 연대가 아닌 우정과 평화를 통한 연대를 보이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지체의 구성과 외관과 능력이 서로 다를지라도 각각은 다 독특한 중요성을 지니며 그 중요성과 차이를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포용하여야 함이 우정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덕의 공동체의 연대는 그 특성상 필연적이다. 덕과 성품은 상대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덕의 공동체의 연대는 곧 친구의 확장이다. 하나님과 예수의 성품에 맞도록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 공동체는 덕스러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정착되어진 인격의 사람들의 집합이다.<sup>99)</sup> 이러한 덕의 공동체의 연대는 혐오문화화를 막아내는 대안이 될 것이다.

### III. 나오는 말

혐오는 일탈적이고 치명적이며 삶 속에서 교활한 방식으로 자신을 위장한다. 혐오는 인간의 감정을 폭력으로 현실화하기에 교회는 무엇이 혐오인지 혐오가 아닌지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sup>100)</sup> 개인감정이 집단감정으로 확장되면서 분노가 증오가 되고 혐오로 발전하며 더 나아가 폭력과 전쟁과 학살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나 국가가 수치심을 양성해 나가며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을 만들어 낸다. 혐오감정을

98) 엘리사벳 존슨, 『하느님의 백한번째 이름』, 397.

99) S. Hauerwas ; C. Pinches,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12.

100)Kathe Weingarten, *On hating to hate*, 279.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합리적 법질서를 넘어서는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부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사회 시스템이나 법 체제 혹은 인권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채 성차별, 인종차별, 연령갈등으로 문제를 돌린 결과 혐오가 그 영향력을 더 넓혀가게 되었다. 자신의 행복을 빼앗는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폭력을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 공동체는 덕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책임을 덮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용기의 공동체로, 두려움을 우정과 용서로 바꾸는 공동체로, 누군가 자신을 오염시킨다고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로, 소수계층을 위협하고 낙인찍는 이들에게서 존중과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감정의 훈련은 기독교 공동체의 사명이다. 분노, 저주, 모욕과 같은 인간 감정 깊숙하게 숨겨져 분출되는 감정은 사회, 문화, 종교, 정치, 경제적 밀바탕과 결합되어 혐오로 드러난다. 문화현상처럼 퍼져나가는 혐오는 법과 사회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내적인 숙고와 반성이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인격과 성품의 계속되는 훈련이 없이는 치유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이다.

지금 교회 공동체는 덕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여야 한다. 성령의 열매와 같은 내적 거룩한 기질이자 성품으로 그 존재를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랑, 우정, 친교와 같은 지속적인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덕과 성품들을 분노, 증오와 같이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구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회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본능적, 감정적 현상에 인격적 자기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분노, 증오와 같은 본능적 감정이 훈련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정과 같은 덕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덕의 윤리적 입장을 깊이 숙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혐오가 문화화 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거룩한 기질을 이 세상에 보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이다. 만일 이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는 나쁜, 거짓된, 불성실한 기질이 판치는 교회로 낙인찍힐 것이고 죽은 척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기질의 소유자가 되어 혐오의 문화화를 차단하고 세상에 우정, 친구, 평화를 말하여야 한다. 거룩한 성품의 교회가 평화를 말해야 그 평화가 진실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이방인을 친구로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현존이 분노와 좌절이 가득하여 서로를 증오하는 사회에 대안이 되며, 빛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한글단행본

- D.L 카모디, 강돈구 역. 『여성과 종교』. 서울: 서광사, 1992.
- 그레고리 바움, 이원규역. 『종교와 소외』.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 김비환. 『축복과저주의 정치사상』. 파주: 한길사, 2004.
- 김열규.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파주: 사계절출판사, 2005.
- 김열규. 『한국인의 원한과 신명 맺히면 풀어라』.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3.
- 러시 W. 도지어 주니어, 김지연 역. 『증오의 과학』.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5.
-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서울: 뿌리와이파리
-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민음사, 2015
- 모로오카 야스코 지음; 조승미; 이혜진 [공역].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파주: 오월의봄, 2015.
- 민무숙.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 해소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4.
- 박충. 『욕쟁이 예수』. 파주: 살림출판사, 1989.
- 박충구. 『예수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박충구. 『종교의 두얼굴』, 서울: 홍성사, 2013.
- 박호성. 『공동체론』. 파주: 효형출판, 2009.
- 에르하르트 베르겐. 『본회퍼의 그리스도론』. 서울: 종로서적, 1991.
- 에리히 프롬. 『불복종에 관하여』
- 오토 마두로, 강인철 역. 『사회적 갈등과 종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윌터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 유석성 엮음. 『고범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부천: 서울신대출판부, 2015.
- 임옥희. 『젠더감성정치』. 서울: 여이연, 2016.
- 존 쉘비 스폰, 김준년, 이계준 역. 『성경과 폭력』,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서울: 민음사 1982.

• 영문단행본

- Barbara Perry, *In the Name of Hate: Understanding Hate Crimes*, newyork: Routledge, 2001.
- Martin E. Marty and R. Scott Appleby. *Accounting for Fundamentalism* ,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4.
- Melanie Klein, Joan Riviere, *Love, Hate and Reparation*, London: L. and Virginia Woolf at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1937.
- Phyllis Goldstein, *A Convenient hatred: the history of antisemitism*, Brookline, MA: Facing History & Ourselves, 2012
- Kathe Weingarten. *On hating to hate*, New York: Family Process, 1962.
- Hauerwas, Stanley; W. H. Willimon, *Lord teach us*, New York: Abingdon, 2009.
- Hauerwas, Stanley; C. Pinche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 Hauerwas, Stanley; W. H. Williman, *(The) truth about Go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Hauerwas, Stanley, *Against the nations: war and survival in a liberal society*.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 \_\_\_\_\_, *Unleashing the scripture: Freeing the bible from captivity to america* , Nashville: Abingdon press
- \_\_\_\_\_,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_\_\_\_\_,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_\_\_\_\_,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 \_\_\_\_\_, *Christian existence today :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Labyrinth Press
- \_\_\_\_\_,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 \_\_\_\_\_, *Cross-shattered Christ: meditations on the seven last words*. Grand

Rapids, Mich.: Brazos Press,

\_\_\_\_\_, *Disrupting time: sermons, prayers, and sundries* (Norfolk, Va.: Cascade Books, 2004),

\_\_\_\_\_, *Prayer plainly spoken*, ugene; Oregon: Wipf and sotck Publishers, 2003.

\_\_\_\_\_, *Preaching to stranger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_\_\_\_\_,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한글 소논문

김득중. “무화과나무 저주 이적 본문 연구.” 『신학과 세계』46 (2004).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2013).

• 영문소논문

Brian M, Britt. “curse left and right: hate speech and biblical trad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8 (2010).

논문투고일: 2017년 02월 25일

심사게시일: 2017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07일

---

• 국 문 초 록 •

---

현대 자본주의,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사고, 가부장적 제도는 감정의 정치와 결탁하여 파괴적 결과를 낳았다. 그것이 바로 혐오문화의 확산이다. 혐오 발언으로 촉발된 혐오문화의 확산은 소수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또한 그들에 대한 차별 구조를 강화시켜 나갔다. 혐오 문화는 빛나간 감정 정치에 법적 제도적 면죄부를 제공하는 악영향을 미친다. 수치심을 주고 희생양을 삼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혐오의 대상을 더러운 오염물로 만들고 사물화시키며 사회로부터 배제시킨다. 이러한 증오와 혐의 확산에 대하여 기독교 공동체는 덕의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혐오와 증오에 대하여 존중과 공감과 평화의 공동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의 훈련을 통한 우정과 친교의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품의 공동체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혐오의 정치화에 대응하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혐오, 덕, 성품, 공동체

---